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일본농업유산

2023 년 5 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와 함께, 미야자키에서는 G7 농업장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야자키에는 세계 중요농업유산과 일본농업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 다카치호고(高千穂郷)・시이바야마(椎葉山)지역

다카치호고・시이바야마지역은, 삼림에 둘러싸여 평지가 극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 목재와 표고버섯, 와규, 차, 벼농사 등을 결합하여 농업과 임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위로 삼림 및 농지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의 보전과 산비탈을 덮는 계단식 논 등의 아름다운 경관, 오곡풍양(五穀豊穰)을 기원하는 가구라(神楽) 등의 전통문화도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할 농업 시스템으로서 2015 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일본농업유산 : 다노(田野)・기요타케(清武)지역

다노・기요타케지역의 농업은, 온난 습윤한 기후를 살려 농업과 축산업의 연계에 의한 토양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이어지는 작물 심기와 말린 채소의 전통기술을 결합한 밭농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 농업 시스템이 2021 년 2 월에 전통적이고 중요한 농림수산업으로서, 국내 밭농사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일본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일본농업유산 : 조선재(造船材)를 산출한 오비(飫肥)임업과 결부되는 ‘니치난 가다랑어 외줄낙시어업’

니치난시 연안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역 삼림의 70%가 오비스기(삼나무) 인공림입니다. 예로부터 니치난에서는 오비스기가 조선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니치난의 가다랑어 외줄낙시어업은, 에도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어업으로 낚아도 무리 전체를 다 낚지 않기 때문에 가다랑어 자원에 친화적이며, 세계가 목표로 하는 ‘SDGs’의 이념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오비스기 숲과 풍부한 산들, 강, 바다와 연결되는 니치난 가다랑어 외줄낙시어업은 이 지역의 가치 있는 보물로서 2021 년 2 월에 일본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어느 지역도 농업과 임업, 축산업, 어업이 깊이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점이 농업유산 등재로 이어진 듯합니다.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